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공적공간의 변화*

Impacts of Mobile Communications on the Urban Public Space

황주성**

유지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개인공간과 사회공간, 그리고 공적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공간에 있어서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다의적 장소성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관찰되었다. 사회공간측면에서는 물리적 만남을 확대하여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로 연결된 모바일친구로 인해 사회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적공간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의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기술발달에 따라 공적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되며 공간 활력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도시 공적공간,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 다의적 장소성, 항시적 연결성, 모바일 친구

* 본 연구는 2004년도 정보통신부 IT특정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실장(jshwang@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주임연구원(jyy@kisdi.re.kr)

1. 서론

공간적 장벽을 줄이고, 시간의 극복을 통하여 공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Harvey, 1989: 232), 최근의 정보통신혁명을 초래하였다.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가능하게 해 주는 인터넷의 이용은 일반화되었으며,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가능하게 해 주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특히, 휴대전화는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한 일상적 테크놀로지가 되어가고 있다. 2005년 2월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3,692만 명인 전 인구의 76.5%로(정보통신부, 2005),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그야말로 ‘휴대전화의 생활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 중 업무의 처리와 사교, बैं킹과 쇼핑 등의 경제행위, 그리고 영화 등의 문화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었으며, 음성통화 이외에 데이터 통신의 발달로 그 이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결합 하에서만 가능했던 만남의 준비방식이 깨어지고, 집이나 사무실이라는 양극화된 통신공간이 확대되어 공적공간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교의 범위와 방식도 기존의 시·공적 구속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게임이나 방송 청취, 그리고 플래시 몹¹⁾ 등과 같이 기존에 없었거나,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휴대전화의 생활화’는 단지 상호작용이라는 사회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영위의 기본단위인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대전화가 일상화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이론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의 저서 ‘참여군중(Smart Mob)’에 기원을 둔 플래시크라우드(flashcrowd, 갑자기 접속자가 폭증하는 현상)와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현장에서 약속된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을 말함

그러나 그동안 휴대전화와 관련된 연구는 기술, 산업, 마케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휴대전화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이용행태와 이용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준호 외, 2004; 전규림, 2004; 이수영, 2003; 성동규 외, 2002; 이인희, 2001; Leung & Wei, 1999; Palen, Salzman & Youngs, 2001)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인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들(송종현, 2004; 배진한, 2003)로서, 휴대전화를 이용함으로써 초래되는 환경적 변화들, 특히 사회작용의 기본원리인 공간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공간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공적 규범이 파괴되고 있음을 다룬 연구들(배진한, 2004; 주정민, 2004)이 있는데,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와 ‘공적공간의 사사화’가 초래되는 현상에 국한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 연구가 휴대전화의 이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실제로 휴대전화가 우리 생활의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발달에 따라 도시 공적공간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타나게 될 공적공간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공적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적 이해와 지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태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이것의 활용이 개인의 공간 인식과 행태, 사회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구성, 그리고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공간적 변화들을 모두 설명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관련 논의들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합의와 정책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도시와 공간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바뀌고 있다. 이들 변화를 조작적이고 중첩되는 개념이지만 개인과 사회, 그리고 공적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개인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공간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된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세부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micro-coordination)’이고 둘째는 장소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활동의 본질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소위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의 등장이다.

휴대전화의 등장은 이동 중의 통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한다(Ling & Yttri, 1999: 6). 인간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미시적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동 중인 상태에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동 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해 점점 하나의 접점으로 근접해 나가는 유연한 만남의 방식도 등장한다. 서로가 약속장소를 잘못 알거나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휴대전화로 해결된다. 인간의 활동이 시공간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물리적 이동성보다는 연결성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미시적 조정이 극단적인 형태로 고도화될 경우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마치 한편의 매스게임처럼 ‘단절 없는 연속적 흐름(continuous project)’으로 짜여질 수도 있다(Kopomma, 2002: 243).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사전적 스케줄링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즉흥적인 정보교환에 의해 새로운 만남과

활동 그리고 일정이 만들어 지는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 이
 른바 ‘실시간 생활양식(real-time life style)’이 가능하게 된다(Kopomma, 2002:
 243). 실시간 접촉에서 비롯된 속도의 문화(culture of speed)는 도시의 기존
 문화, 즉 장소의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Sheller & urry, 2000 from Kopomma,
 2002: 242).

다른 한편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동일한 장소에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상식으로 공간을 경험하
 게 하며 ‘다의적 장소성’을 가능케 한다. 근대화 사회에서 인간활동은 장
 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장소의 논리가 역으로 인간활
 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time)’이 사회생
 활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Zwick & Dholakia, 2003). 예컨
 대, 집에서는 휴식을 취해야하고,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등의 근대적 공간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의 등장은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칙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
 간(spatialized time)’의 시대에서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를 규정하는 ‘일시
 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로 변
 하게 되는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공간의 장소화가 원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성이 발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는 식사를 위한 장
 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와 통화를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식당이라는
 장소보다는 나와 통화자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배경장소로 전환
 된다. 커피숍이라는 친교의 장소도 무선랜을 통해 회사의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는 그 시간동안에는 일종의 위성 사무실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일시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새로
 운 국면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도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장소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 장소는 본질적이거나 고유한 맥락을 상실하고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익명적 도시공간이 언제든지 개인과 구성원 전체에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Adriana, 2003: 115). 공적공간과 관련하여 다의적 장소성은 공동체의 집합적이고 연속적인 장소의 경험을 어렵게 함으로써 공적공간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공간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다기능성을 강화시켜 ‘공적공간의 거실화(living room for the inhabitants)’(Kopomma, 2000: 18)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통제에 관련되지만, 그것이 집합적으로 형성되고 보편화됨으로 인해 개인공간은 물론 사회공간 및 공적공간 변화의 기저가 되는 개념이다.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이재현, 2004; Geser, 2004; ITU, 2004), 공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된다. 첫째는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항시적으로 연결된 모바일친구’의 가능성이다. 둘째는 통신-공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통신교통 대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이다.

사회적 의미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연결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소통욕구를 해결해 준다.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points of reference)와 시공간적 맥락을 같이하는 공존자(co-ordinate)가 형성, 유지된다. 개인의 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소위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에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통화, 문자, 화상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들이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Kopomma, 2000: 3).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모바일 집단에 소속하고 삶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공존자의 부족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Kopomma, 2002: 243). 한숨소리, 미소, 눈짓 등이 모티콘이나 간단한 단어를 통해 연결도 단절도 아닌 중간상태의 주변적 배경을 전달함으로써 가상적인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Ito & Okabe, 2002: 13-14) ‘분위상의 공존(ambient virtual co-presence)’이 이루어지는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full-time intimate community)’이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모바일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즉흥적 만남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만남의 고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험된 바 있는 ImaHima²⁾와 같은 서비스는 차세대 휴대전화 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Kopomaa(2002)가 언급한 ‘유동적이고 순간적인 공동체의식(fleeting instance of communality)’도 접촉의 증대와 동시적 몰입(immersed, synchronized living)을 물리적 공간상의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의 조정능력을 강조한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또한, 만남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아쉬웠던 이야기나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의 이용 사이에는 상호상승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의 교류는 결국 기존의 도시공간이 휴대전화의 흐름에 의해 보다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채워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만남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Ito & Okabe, 2002).

2) ImaHima(지금 한가해)는 2000년에 서비스되기 시작한 일본 제1의 휴대전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로서 친구 그룹끼리 자신의 위치와 특징을 상대방 바탕화면으로 송신하는 메신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끼리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분인지 게시판에 적어두면 접속 중인 이용자끼리 검색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http://www.imahima.co.jp>).

3)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³⁾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공적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공적공간 규범의 파괴’와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로 대별될 수 있다.

정보통신은 지금까지 구분이 분명하였던 여러 영역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다 (Wei & Leung, 1999: 12-26).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사적인 대화나 업무협의를 공적공간⁴⁾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공간의 사적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워크맨은 사적, 주관적, 감정적 공간이 도시의 공적공간을 채우게 하며 그 결과 공적공간을 공유된 경험의 공동체가 아닌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집합체로 변모시켰다는 해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Du Guy, 1997 from Green, 2002: 283). 휴대전화 역시 공간의 분절화와 개별적 경험을 조장하여 (Cooper et al, forthcoming from Green, 2002: 283) 개개인들을 국지적, 집합적, 그리고 공존적 이해와 활동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간 구분의 모호성으로 공적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공적공간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배진한, 2004) ‘공적공간의 사사화’를 진행함으로써 (주정민, 2004) 공적규범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적공간의 역할과 관련한

3) 공적공간이란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 중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공공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도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 공공적 성격의 공간은 물론 카페, 식당, 병원, 도서관, 쇼핑몰 등 대중에게 개방된 기업적 공간을 포함한다.

4) 공적공간과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학문영역별이나 사용처별로 각각의 의미가 혼재하여 혹은 차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이며,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하나의 장소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그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장소는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김기호 외, 1990)’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고서 전체에서는 ‘공적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례와 설문조사 등 공적공간에서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장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논의는 두 가지 양극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회동의 장소로서 공적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만남의 조정이 ‘이동 중 연결성(mobile communicability)’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만남의 일차적 장소로서 의미를 지녔던 광장, 공원, 역 등 공적공간들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Burleson & Witzgall, 2002)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리학 또는 도시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공적공간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정과 직장의 중간지대 다시 말해, 통신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공적공간이 휴대전화에 의해 상호작용과 만남, 그리고 생활이 영위되는 새로운 공간, 즉 제3의 공간으로 새로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나아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공적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특정지역의 장소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도시공간 전반의 집약적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pomma, 2002: 244; Kopomma, 2000: 2).

4)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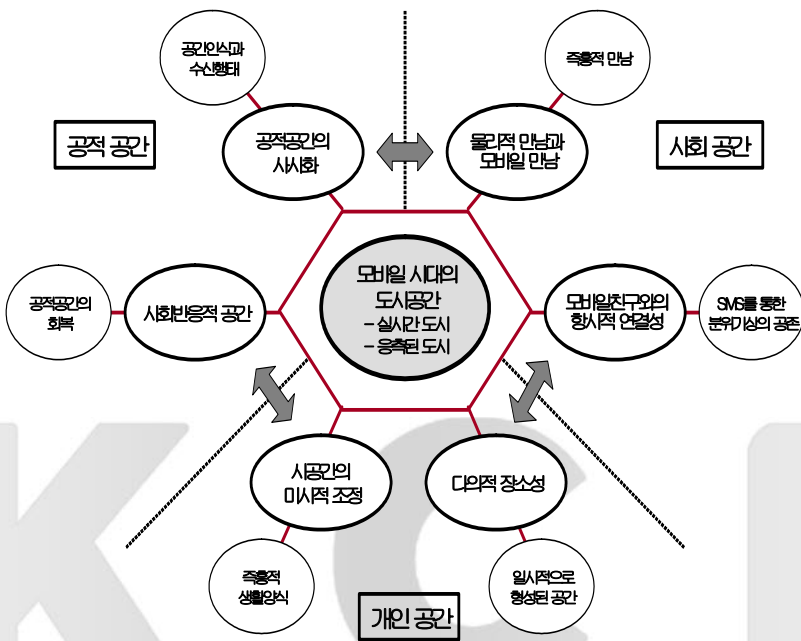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관련된 기존의 주요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1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간별 특성의 상호적 관계성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 차원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각 공간별 논의들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의 시공간 활용이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가설1-1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시공간의 미시적

<그림 1>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조정이 가능하다.

연구가설1-2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의한 다의적 장소성으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문제2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가설2-1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의한 모바일친구로 항상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한다.

연구가설2-2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만남의 관계는 보완적이다.

연구문제3 :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미치

는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3-1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공적공간의 규범이 파괴된다.

연구가설3-2 :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3. 연구방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및 장소의 다의성 등 개인의 공간 경험과 항시적으로 연결가능한 친구집단의 존재, 물리적인 만남의 관계 등 사회적 공간과의 관계,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 변화 등 공적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한 공간적인 양상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그 활용성이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간의 변화를 살피고자 함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률이 가장 높은 SKT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51.3%)의 이용자 구성 즉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서울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였다⁵⁾.

5) 표본집단에 있어서 직업별 구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직업구성 정보가 정확성이 낮아 기준비율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SKT 가입 시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인지가 가능한 성과 연령 이외에는 부가적인 정보로서 직업정보 또한 SKT의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적는 정보로 오류가 많다. 무직이 전체의 40.7%나 되고 있어서 직업별 층화를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직업구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직업별 구성인 전문관리직 5.2%, 사무직 17.7%, 서비스판매직 25.6%, 생산관리직 11.4%, 학생 19.6%, 주부 16.3%, 무직 4.3%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표 1 > 표본집단의 사회경제 지표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0	60.0%	직업 ⁶⁾	화이트칼라	109	27.2%
	여	160	40.0%		블루칼라	77	19.3%
연령**	10대	35	8.8%		자영업	71	17.7%
	20대	96	24.0%		주부	74	18.5%
	30대	104	26.0%		학생	65	16.3%
	40대	94	23.5%		무직/기타	4	1.0%
	50대 이상	71	17.7%	학력	중졸 이하	15	3.7%
결혼유무	기혼	269	67.2%		고졸	170	42.5%
	미혼	131	32.8%		대재 이상	215	53.8%

* : 근사유의율: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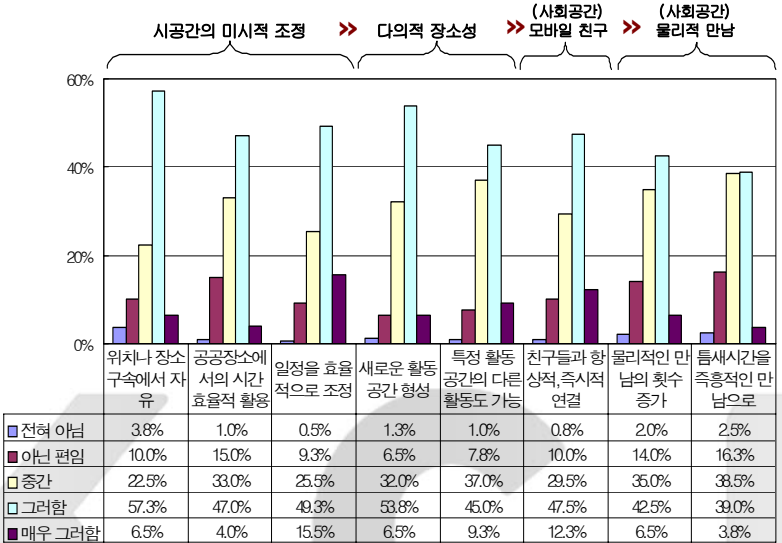
** : 근사유의율:100%

표본집단의 성별구성은 모집단과 93.5%의 근사유의율을 나타내며, 남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보다 0.2% 적은 60.0%이며, 여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보다 0.2% 많은 40.0%로 이루어졌다. 연령구성은 모집단 구성과 100%의 근사유의율로, 10대가 8.8%, 20대가 24.0%, 30대가 26.0%, 40대가 23.5%, 50대 이상이 17.7%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변화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응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의하고 응답내용을 체크하였다. 직접 면접조사는 대상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응답 편의(bias)를 없애주고 무응답율도 줄여준다. 또한, 응답내용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불분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록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을 이용해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6) 직업 분류에 있어서 화이트칼라에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이 포함되며, 블루칼라에는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그리고 일반작업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휴대전화 사용 이후 시공간의 활용



4. 연구결과

1)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경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공간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논의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전과 이용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일시적 공간의 형성’,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물리적 만남의 증대’ 순으로 활용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적공간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일정의 효율적 조정은 각각 63.8%, 51.0%, 64.8%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일시적 공간’의 형성과 이로 인한 장소의 다의적 활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동공간의 형성과 특정 활동만 하던 공간에서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각각 60.3%와 54.3%로 조사되었다.

사회공간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될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관계의 향상에 대해서는 항상 연결되어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와 물리적 만남의 횟수의 증가에 각각 59.8%와 49.0%가 동의하였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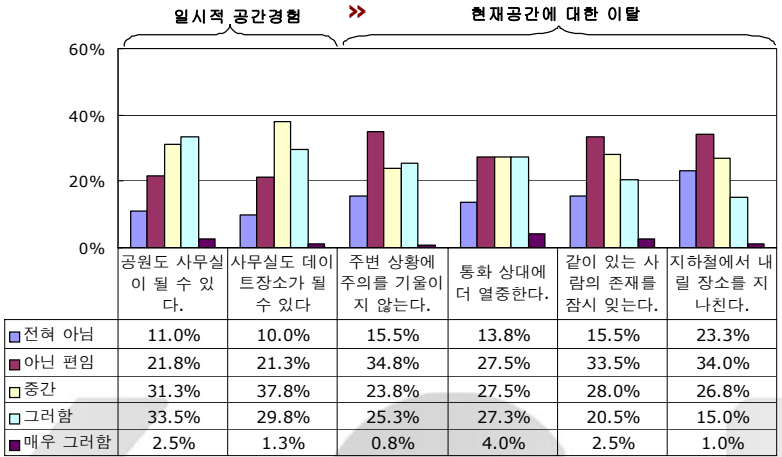
휴대전화의 사용은 이동 중의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이동 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하여 약속시간이나 공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게 한다.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만남과정의 유연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약속 설정 시 얼마나 유동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정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적인 만남과 공적인 만남을 각각 나누어 만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고정되어 확정되는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호작용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남의 과정에서 29%가 시간과 장소를 모두 확정하지 않고 만남의 접점을 합의하여 나갔다. 사적만남의 과정은 36.1%(사적 만남의 과정에서 ②, ③, ④의 합계)가, 공적만남의 과정은 21.7%(공적 만남의 과정에서 ②, ③, ④의 합계)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시공간의 유연화 도구로서 휴대전화의 이용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지만, 휴대인터넷, 텔레메틱스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 정보의 흐름 조정과 도로의 이용 등으로 ‘만남과정의 유연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



(2) 다의적 장소성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개개인마다 다른 공간을 공유하는 “다의적 장소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 유형의 다의적 장소성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3에서 보듯이, 6가지 문항 중에 앞의 두 가지는 이동중 연결성으로 인한 일시적 공간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며, 나머지 네 문항은 휴대전화에 몰입됨으로 인한 현재공간에 대한 이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의적 장소성 경험정도는 높지 않았으며(16%~36%), 극

<표 2> 만남 과정의 유연화

	전체 만남	사적 만남	공적 만남
① 시간, 장소 확정	71.0%	64.0%	78.1%
② 시간 확정, 장소 유동적	13.2%	16.5%	9.9%
③ 장소 확정, 시간 유동적	9.7%	11.7%	7.6%
④ 시간과 장소 모두 유동적	6.1%	7.9%	4.2%

단적인 형태인 하차오류가 가장 낮았고(16%), 공존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분석, 통화 상대방에 대한 몰입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정한 기능의 공간이 휴대전화로 또 다른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경험은 좀 더 많은 응답자로부터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림2의 '다의적 장소성'의 유사질문에 비해 수궁하는 정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는 제시한 문항이 좀 더 구체적인 장소에 한정된 것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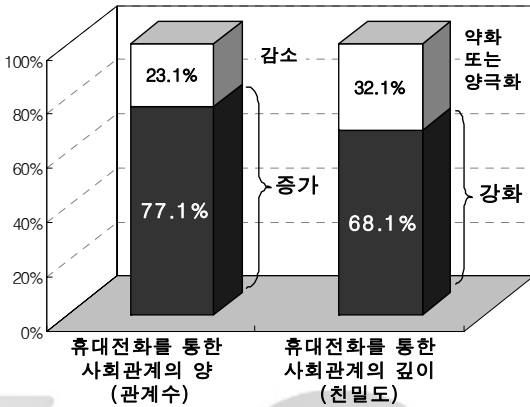
공적공간의 업무공간화나 사적공간화에 대해서 각각 36.0%와 31.1%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화나 문자메시지 상대에 열중한다거나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잠시 잊을 만큼 참여한 경험, 지하철에서 내릴 장소를 지나치는 등 현실의 존재공간을 의식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각각 26.1%, 31.3%, 23.0%, 16.0%가 인정하였으나, 50.3%, 41.3%, 49.0%, 57.3%가 되는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실재공간에 대한 현존감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가상공간에 때때로 몰입하기도 하지만, 실재공간을 망각하지 않고 가상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이중적 혹은 다중적 공간을 공유해 나간다.

2)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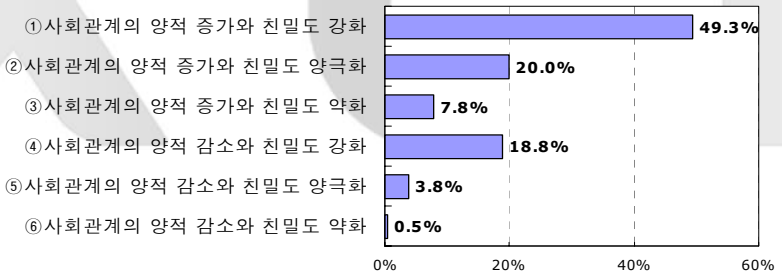
휴대전화와 사회공간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계 전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휴대전화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관계의 양(관계수)과 깊이(친밀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휴대전화의 사용에 의한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의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사회관계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77.1%(그림5의 ①과 ②와 ③의 합계)가 양적인 증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관계의 깊이에 대해서는 68.1%(그림5의 ①과 ④의 합계)가 친밀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향상시킨 것으

<그림 4>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



<그림 5>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성의 변화



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휴대전화로 인해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나, 일부 사람과는 친밀도가 강화된 반면 다른 사람과는 더 소원해졌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에 달해 휴대전화로 인한 사회관계의 양극화 현상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시공을 극복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양적 팽창과 질적 집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상(恒常)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듯, 사회적인 관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공존감을 주는 사람들간에 형성된 사회네트워크를 ‘모바일 친구’라 하여 하루에 1회 이상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의 수와 이들 간의 교신수를 알아보았다.

하루에 1회 이상 음성통화하는 상대자수는 3.0명, 그리고 1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하는 상대자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88.2%가 항상 옆에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를 평균 2.3명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모바일친구 가운데 교신수가 많은 친구와는 하루 평균 약 4.4회의 음성통화나 문자메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와의 관계는 부부(25.9%), 가족(21.3%), 죽마고우(18.0%), 친구 및 동료(15.1%), 애인(13.1%)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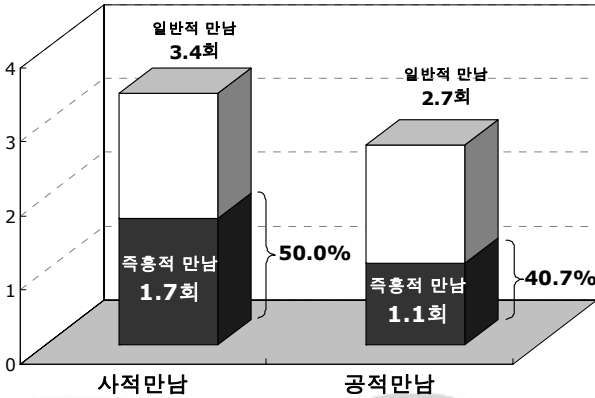
(2) 즉흥적 만남과 물리적 만남

휴대전화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미시적 조정력을 제공하므로 물리적 만남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생각을 하였어도 가능하지 않았던 만남,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즉흥적 만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사회관계를 더 풍요롭게 형성해 갈 수 있다.

휴대전화의 등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효율적 관리로 여유시간의 확보와 즉각적인 연결성으로 여유시간을 즉흥적 만남으로 연결시켜 사회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개개인의 공적인 만남과 사적인 만남 중에서 즉흥적인 만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았다(<그림 6> 참조).

친구나 친척 등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그림 6> 일반적인 만남과 즉흥적 만남



3.4회로, 많게는 50회인 사람도 있으며, 사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도 16명으로 전체의 4%이다. 그리고 약속과 다음 약속 사이에 잠시 여유가 생긴 틈새시간이나 사전에 약속이 정하여지지 않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1.7회이다. 전체 사적 만남 대비 50.0%로 두 번의 만남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로나 관공서 일보기 등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2.7회로, 많게는 40회인 사람도 있으며, 공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체의 27%인 108명이다. 즉흥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1.1회이며, 전체 공적 만남 대비 40.7%로 나타났다.

공적인 만남에 있어서 즉흥적 만남의 비율이 사적 만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공적 업무라는 성격상 회의나 계약과 같은 일은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인 만남의 횟수와 사적인 만남의 횟수를 합한 전체 만남은 일주일 평균 6.1회이고 그 가운데 즉흥적 만남은 2.7회로, 일반적 만남 가운

데 즉흥적 만남의 비율이 44.3%이어서 두 번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즉흥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로 인하여 즉흥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만남에 있어서는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이 전체 만남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물리적인 만남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만남이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일주일 평균 4.2회이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만남의 비율도 증가하여 다량이용그룹은 8.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인 만남의 횟수도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1.8회인 반면, 다량이용그룹은 3.9회이다.

다시 말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휴대전화는 물리적인 만남을 대신함으로써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계기가 되어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물리적인 만남을 확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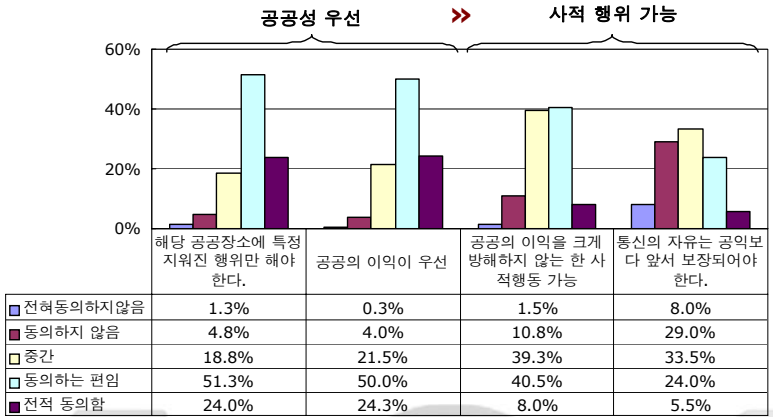
하지만, 휴대전화와 물리적 만남 간의 인과관계는 일방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사회적 관계가 넓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더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의미 변화

휴대전화에 의해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공적공간에서 가능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공적공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적공간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특정 혹은 불특정한 목적으로 모여서 공공적 성격을 띠는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은 공적공간에서의 공익과 사익,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에

<그림 7>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공적공간에 대해서 75.3%가 공적공간의 특성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여기며 74.3%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48.5%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도 여기며, 통신의 자유가 공익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29.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익은 우선되어야 하되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통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7> 참조).

(1) 공적공간의 휴대전화 이용 규범

공간적 모호성으로 인한 휴대전화 수신기의 공적규범 파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이 분석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는 Plant(2001:16)가 이야기한 휴대전화 사용행태인 ‘① 자리 피하기(flight), ② 전화하는 동안 잠시 대화 중단하기(suspension), ③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전화받기(persistence)’를 보다 세분하여 ‘① 자유롭게 통화, ② 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통화, ③ 주요 통화인지 확인 후 최소통화,

<표 3> 공간특성에 따른 공적공간의 유형 구분⁷⁾

	폐쇄적 공간 (내부공간)	개방적 공간 (외부공간)
한정적 행위 공간	③강의실/회의실 ④도서관 ⑤극장/공연장	⑩미술관/박물관 ⑪전시장/대중집회장 ⑫경기장
다양한 행위 공간	⑥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⑦찜질방/PC방 ⑧커피숍/일반식당 ⑨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⑬쇼핑센터 ⑭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⑮도로/공원/광장

① 집, ② 사무실 은 비교대상이 되는 참조공간으로 설정하여 함께 질의됨

④ 장소를 이동하여 통화, ⑤ 연결 후 간단통화 (‘관람중입니다’하면서 바로 끊음), ⑥ 확인만 하며 통화는 하지 않음, ⑦ 꺼둠’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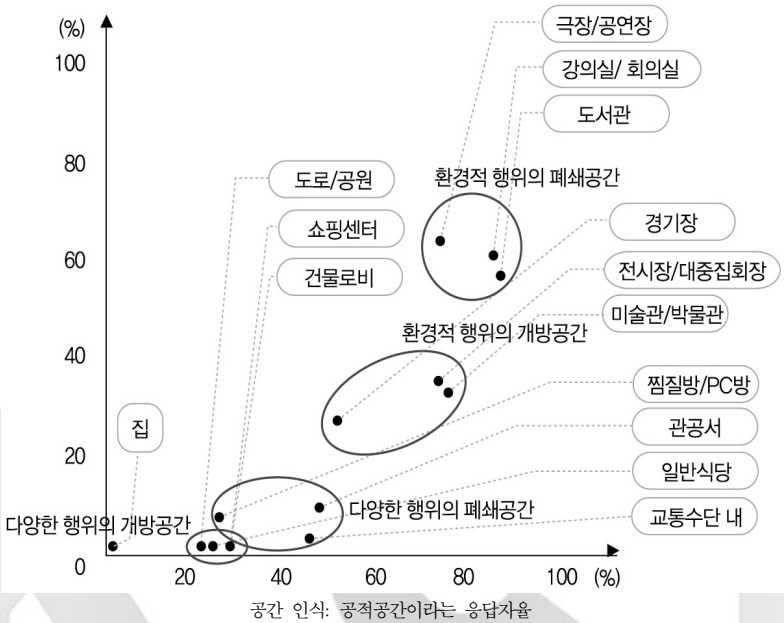
그리고 공적공간은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과 행위의 특성 등 공간특성에 따라 <표 3>에서와 같이 공적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공간에 대한 인식조사는 물론 휴대전화 이용행태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공적공간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나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공간으로 나뉘어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한정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며, 개방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8> 참조).

회의실과 도서관, 공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폐쇄적 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각각 61.3%, 55.0%, 64.5%가

7) 사적공간인지 공적공간인지에 대한 공간구분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에 상관없이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 공간으로 분류되었다. 한정적 행위공간은 ③강의실/회의실, ④도서관, ⑤극장/공연장, ⑩미술관/박물관, ⑪전시장/대중집회장, ⑫경기장이며, 다양한 행위 공간은 ⑥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⑦찜질방/PC방, ⑧커피숍/일반식당, ⑨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⑬쇼핑센터, ⑭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⑮도로/공원/광장이다.

<그림 8>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전시장, 경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32.6%, 34.8%, 25.8%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며, 36.6%, 37.3%, 34.1%가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지금은 관람중입니다’라는 간단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관공서, PC방, 일반식당, 교통수단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폐쇄적 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이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통화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0%, 47.3%, 76.8%, 72.6%로 나타났다. 일반식당과 교통수단은 자유통화를 하는 편이나, 관공서와 PC방은 주변상황에 따라 각각 38.6%와 28.3%는 간단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센터, 대합실 등의 건물로비, 도로나 공원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에서는 각각 72.3%, 80.8%, 92.6%

<표 4> 공적공간의 유형별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간 특성	개별 공간	공적 공간 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공적 공간 인식 (응답자율)	휴대전화 이용행태	
				자유통화 (응답자율)	통화자제 (응답자율)
참조 공간	집	0.110*	2.0%	96.0%	0.5%
	사무실	0.227**	74.5%	52.0%	9.8%
한정적 행위의 폐쇄 공간	강의실/회의실	0.318**	84.5%	7.3%	61.3%
	도서관	0.310**	84.8%	6.3%	55.0%
	극장/공연장	0.244**	73.0%	6.5%	64.5%
한정적 행위의 개방 공간	미술관/박물관	0.281**	76.5%	13.5%	32.5%
	전시장/대중집회장	0.400**	74.3%	12.5%	34.8%
	경기장	0.417**	55.5%	24.3%	25.8%
	관공서	0.180**	48.3%	32.0%	9.3%
다양한 행위의 폐쇄 공간	점점방/PC방	0.040	25.3%	47.3%	6.8%
	커피숍/일반식당	0.248**	23.8%	76.8%	0.3%
	교통수단 내	0.203**	44.8%	72.5%	1.8%
다양한 행위의 개방 공간	쇼핑센터	0.227**	26.0%	72.3%	0.5%
	대합실/건물로비	0.178**	25.8%	80.8%	0.5%
	도로/공원/광장	0.182**	21.8%	92.5%	0.8%

*: 상관계수 0.05수준(양측)에서 유의

** : 상관계수 0.01수준(양측)에서 유의

의 응답자들이 통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다양한 행위공간과 같이,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공적인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⁸⁾ 공적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따라서 공적 규범의 허용정도가 차이를 보이며,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도 공간의 공적인 정도에 따라서 통화를 자제하거나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공간의 유형에 따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한정적 행위공간에서는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이용자의 자율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행위공간에서는 규제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8)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반공적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5>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방식

구분	통화 자유	개인 판단	자율 규제	법률 규제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강의실/회의실)	0.3	26.0	64.8	9.0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전시장/집회장)	0.8	35.3	58.8	5.3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지하철/버스 내)	16.0	61.5	21.0	1.5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도로/공원 등)	46.8	42.8	10.5	0.0

따른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표 5> 참조).

(2) 공적공간의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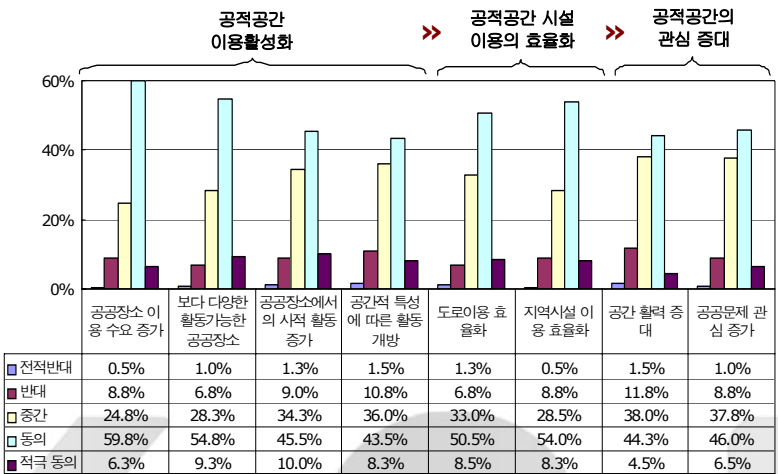
휴대전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성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다기능해지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향후에는 더 큰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증대로 예견되는 공간의 다중적 활용과 이용의 효율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적공간시설 이용의 효율화, 공적공간으로의 관심을 통하여 공적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과연 쇠퇴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공적공간의 수요와 활용 및 활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공적공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하리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나 공적공간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66.1%) 공간 다중성이 확대되리라는(64.1%) 기대가 높으며, 다음으로 도로이용(59.0%)과 지역시설이용(62.3%) 등 공적공간시설 이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문제(52.5%)와 공간 활력(48.8%) 또한 증대될 것이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림 9> 참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요구되어지는 정보인프라나 정보서비스는 공공시설 정보서비스(61.3%)와 교통정보서비스(64.1%), 위치정보서

<그림 9>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따른 공적공간의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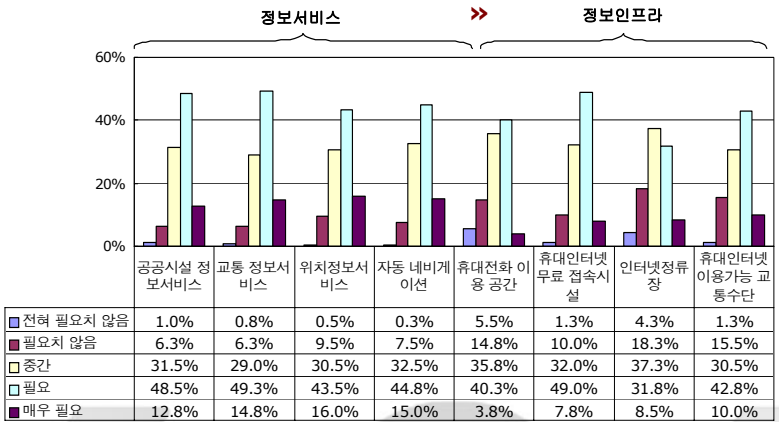
비스(59.5%), 자동차네비게이션(59.8%) 등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정보인프라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정류장(40.3%)과 휴대전화 이용공간(44.1%)은 낮은 수요정도를 보였다(<그림 10> 참조).

5.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도시 공적공간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 활용의 변화, 사회적 관계 및 사회공간의 재구성, 그리고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공적공간의 기능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 가설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시공간 활용의 변

<그림 10> 미래의 공적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



화를 살펴본 결과,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에는 이용자의 약 65%가량이 동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행위의 하나인 ‘만남과정의 유연화’도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만남 중 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적인 만남의 경우 그 비중이 36%에 달해 휴대전화가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다의적 장소성을 경험한 경우는 16~34% 정도로 나타나, 앞의 현상에 비해서는 다소 덜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적공간을 사적 또는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험이나 현실공간에 대한 이탈의 정도가 전체 응답자의 약 30% 정도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사회관계와 사회공간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를 통해 만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며(77.1%) 기존관계의 친밀도(68.1%)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의 범위와 관계성의 깊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정서적 유대로 안정감을 주며, 항상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휴대전화 이용자들 중 대부분(89%)

는 하루 1회 이상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는 소위 ‘모바일 친구’를 적어도 한명 이상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평균 2.3명의 모바일 친구들을 갖고 있으며, 가장 교신수가 높은 친구의 경우 하루 약 4.4회의 교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친구 중 최빈도의 교신을 보이는 상대방은 부부(25.9%), 가족(21.3%) 등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대상이 높지만, 과거의 학교 또는 직장 친구들과의 교류도 상당히 높은 비중(18%)을 차지하였으며, 애인이 그 다음으로(13%) 나타났다. 휴대전화로 인해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은 물론 다른 공간의 친구나 애인과 모바일을 통한 원격교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74.3%가 동의하지만 통신의 자유에 대해서는 29.5%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적공간의 유형에 따라 ‘공공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달라, 회의실과 도서관 등의 ‘한정적 행위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84.5%), 도로와 공원 등 ‘다양한 행위공간’은 반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공적공간이라는 인식 21.8%) 강하였다.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상기한 공적공간의 유형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한정적 행위공간’에서의 통화자제는 61.3%에 달하는 반면, ‘다양한 행위공간’에 있어서는 0.8%만이 통화를 자제하고 있었다. 공적공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개인판단(52.0%)이나 자율규제(47.3%)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역시 공적공간의 유형에 따라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공간을 사사화시키고 공적규범을 파괴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공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공적공간의 성격에 맞는 규범이 설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적

공간의 이용확대나 공공시설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공적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공적공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되리라는 일반적 추측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모바일 기술발달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공공시설 정보, 교통정보, 위치정보, 자동네비게이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는 향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 및 ‘제3의 공간’ 형성으로 공간혁명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비쿼터스 정책에 도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간특성에 따른 휴대전화의 이용행태 및 공간 반응적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용 요구는 한정적 공적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적공간의 미래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이동성과 지능성 그리고 융합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됨에 따라 공적공간 및 공적공간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물리공간상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에 반응하여 공적공간을 제어할 수도 있다. ‘사회반응적 공간(socially responsive environment; context aware environment)’이란 유비쿼터스 기술의 환상적인 상호성(fascination of interactivity)과 실시간 응답성(real-time responsiveness)을 다시 물리적 공간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활동과 이동에 대응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공간을 의미한다(Burleson & Witzgall, 2002). 이 개념의 주창자들은 사회반응적 환경이 개개의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공유된 정보와 인식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공간인지뿐만 아니라 이용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공적공간의 새로운 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가 더욱더 요구된다.

표 6.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의 변화(가로표 2페이지)

K C I

가로표 이어짐

K C I

Abstracts

Impacts of Mobile Communications on the Urban Public Space

Hwang, Joo-Seong·Yoo, Ji-Yeon

Mobile communications is argued to reshape and activate the existing space by increasing 'mobile communicability en route' and 'real time interac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n how different the use of a cellular phone is in each different space. In this study, the space is divided into three distinct parts including the private, social and public space. First, spatial micro-coordination and experience of polysemy of place are widely observed in the use of a mobile phone in the private space. Secondly, it is found that a mobile phone contributes to extending the scope of social contacts which in turn compliments the existing social relationship. Moreover, a full-time intimate community that is connected via a mobile phone results in reshaping the social spac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the usage pattern of a mobile phone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spac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nvisaged to lead to more demand for the public space while facilitating the use of the public space.

Key words: Urban Public Space, spatial micro-coordination, polysemy of place, full-time intimate community

참고문헌

- 마셜 맥루언(김성기·이한우 옮김). 2002.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민음사
(원제: Marshall McLuhan. 1964,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 배진한. 2004.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성동규·조윤경. 2002. 「이동전화 이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른 이용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 송중현. 2003. 「휴대전화 이용동기와 행태가 사회적 관계 및 규범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박사학위논문
- 안영진. 2004. 「모바일시대 공적공간분석을 위한 사회공간 이해」. KISDI 내부회의자료
- 이동후·유지연·황주성. 2005. 「휴대전화와 시공간 경험의 재구성-초점 집단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2호, 337-377쪽.
- 이수영. 2003. 「이동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 음성통화서비스와 문자서비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 이준호 외. 2004.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행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7.
- 이재현. 2004.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 주정민. 2004.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과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정보통신부. 2005. 이동전화가입자수, www.mic.go.kr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프랜시스 케언로스. 1999.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 세종서적 (원제 : Frances Cairncross, 1997, 『The Death of Dist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황주성·유지연·이동후. 2006.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인식과 행태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년 여름호.
- _____. 2005.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 공적공간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메가트렌드 시리즈 05-20.
- Adriana de Souza e Silva. 2003. “From MUDs as space to space as a MUDs - a study about cell phones.” In: Proceedings of the Life by Design: Everyday Digital

- Culture Conference. Irvin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I):115-123
<http://www.humanities.uci.edu/visualstudies/everyday/papers.html>
- Anthony M. Townsend. 2000. "Life in the real-time city: mobile telephones and urban metabolism." *Journal of Urban Technology*. (7)2, pp.85~104
- _____. 2001. "The Science of Location: Why the Wireless Development Community Needs Geograph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_____. 2001. *Mobile Computing and Communicaitons: New Interactions Between Information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Use*
- Burleson, W. and Witzgall, B. 2002. "Dynamic Physical Architecture." *InterSymp2002*, 14th
- Geser, H. 2004. *Towards a Sociological Theory of the Mobile Phone*. Release 3.0
- Graham, S., & Marvin, S. 1996.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London: Routledge
- Green, Nicola., Harper, Richard H., Murtagh, Gerald & Cooper, Geoff. 2001. *Configuring the Mobile User: Sociological and Industry Views,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pp.146~156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Ito, Mizuko and Okabe, Daisuke. 2003. "Mobile Phones, Japanese Youth, and the Re-Placement of Social Contact." in *Front Stage - Back Stage: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Renegotiation of the Public Sphere*, edited by R. Ling. Grimstad, Norway.
- ITU. 2004. "Social and Human Considerations for a More Mobile World." Background Paper
- Kopomaa, T. 2000. *Speaking mobile: the city in your pocket*. YKT's electronic publications, available at <http://www.hut.fi/Yksikot/YKT/julkaisu/mobile.htm>
- _____. 2002. *Mobile phones, place-centered communication and neo-community*. Interface
- Leung, L., & Wei, R. 1999. "Who are the mobile phone have-nots?" *New Media & Society*, 1(2), pp.209~226.
- Leysia Palen, Marilyn Salzman & Ed Youngs. 2000. *Going Wireless: Behavior & Practice of New Mobile Phone Users*. Philadelphia, PA.
- Ling, Rich and Yttri, Birgitte. 1999. "Nobody sits at home and waits for the telephone to ring." Micro and hyper-coordination through the use of the mobile telephone, Presented at Perpetual Contact Workshop, December,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 Green, N. 2002. "On the Move: Technology, Mobility, and the Mediation of Social Time and Space." *The Information Society*, 18, pp.281~292
- Nokia. 2002. "Are you ready for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an evolutionary ap-

- proach to implementing MMS.” Nokia [On- line]. Available: www.nokia.com
- Palen, L., Salzman, M., & Youngs, E. 2001.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pp.109~122
- Plant, Sadie. 2001. “on the mobile :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Rich Ling and Leslie Haddon. 2001. “Mobile telephony, mobility and the coordination of everyday life.” presented at “Machines that become us” conference at Rutgers University
- _____. 2002. “The social juxtaposition of mobile telephone conversations and public space”s
- Sadie Plant. 2001. “on the mobile :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Sheller, Mimi. 2004. “Mobile Publics: Beyond the Network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 1:39-52
- Sheller, M. and Urry, J. 2000, “The City and the Ca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4, No. 4, pp.737~57
- Swingedouw, E. 1993. “Communication, mobility and the struggle for power over space.” In G. Gianopoulos & A. Gillespie (Ed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novation in Europe* (pp.305-325), London: Bellhaven Press
- Wei, R. and L. Leung. 1999. “Blurring public and private behaviors in public space: policy challenges in the use and improper use of the cell phone.” *Telematics and Informatics*, 16: 11-26
- Zwick, D. and Dholakia, N. 2003, “Mobile Technologies and Boundaryless Spaces: Slavish Lifestyles, Seductive Meanderings, or Creative Empowerment?” *H.O.I.T.*, Irvine, CA, April 6-8.